



제 88회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영화 <스포츠라이트>는 보스턴글로브지의 탐사보도탐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들은 가톨릭 교구 사제들의 성추행 사건을 취재하면서, 사실 확인을 위해 끊임없이 피해자와 가해자, 변호사들을 찾아다닌다. 범행 사실이 없는 사제가 명단에 포함되어 보도된다면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탐사보도 기자들이 송고 순간까지 확인과 검증에 매달리는 이유다.

우리사회의 약자를 대변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탐사보도는 뉴스의 심층성이 가장 극대화된 형식이다. 속보성의 강점을 인터넷 언론들이 선점하면서 전통 언론이 우위를 지킬 수 있는 영역 또한 탐사보도가 아닌가 한다. 특히 방송은 영상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한다. 이에 재연과 설명적인 이야기 전개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타이즈(Dramatize)탐사보도가 눈에 띄곤 한다. 시청자들은 재구성된 사건관계를 따라가며 보도의 프레임에 맞춰 사실관계를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언론이 약자를 대변한다는 사명감에 피해자의 시선에서 스토리텔링을 구성한다면 또 다른 피해를 만들 수도 있다. 개별사건을 재구성할 때 제보자나 피해자의 진술이 주효한 것은 사실이다. 언론은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들리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제보자의 말도 의심해보아야 한다. 2014년 11월 미국 대중음악잡지 '롤링스톤'의 캠퍼스 성폭행(Rape on Campus) 오보 사건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롤링스톤 지는 버지니아대 캠퍼스 내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라고 주장한 제보자의 말을 믿고 보도했으나, 게재 2주 만에 오보임을 시인한 사건이다.

탐사보도에서 의혹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종종 조정신청을 한다. 그들은 보도가 편파적이고 왜곡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가 된다고 주장한다.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분만과정 중 의료과실에 대한 보도가 조정대상이 되었다. 신생아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위 보도로 인해 해당 산부인과 원장은 술한 욕설과 비난에 시달렸다고 한다. 의료사고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 법정에서 공방 중이다. 이런 경우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만큼 조정을 통해 정정보도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제보자의 시선을 따라가는 보도는 일반 시청자의 관점에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는 확신을 주기 십상이다.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다. 이에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정 대상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4.02.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면 사람들의 시선은 그곳에 집중된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곳을 비춘다면 대형 사고다. 탐사보도는 시의성보다 정확성에 방점이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해야 한다. 특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소송이 끝난 후에 보도해도 늦지 않을까. 언론이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의 강렬함과 함께 송곳 같은 정치함을 기대한다.